

At a Glance

- 충남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 위험 증가
- 청년 고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요인
-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직무역량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정책적 접근 필요

충남지역 청년 일자리 현황과 인력양성 방향

01

충남지역
청년 일자리 현황과
인력양성 방향

1

02

충남지역 청년층
유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9

03

충남도내
청년층 취업과
지역산업 연계한
인력양성 방향

15

01

충남지역 청년 일자리 현황과 인력양성 방향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창행 주임연구원

1. 배경 및 목적

충남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험단계에 도달한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역 경제 성장 둔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내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적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계속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인가?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청년들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대표적인 장이 바로 일자리일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는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지방정부는 『OO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OO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등과 같은 법률과 조례를 제정해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년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나, 거꾸로 충남지역내 기업이 구인할 때 구직자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충남지역의 인구·고용 현황¹⁾을 분석하고,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충남인자위)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청년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어떠한 점을 선호하는 지를 분석해 인력양성 및 일자리 활성화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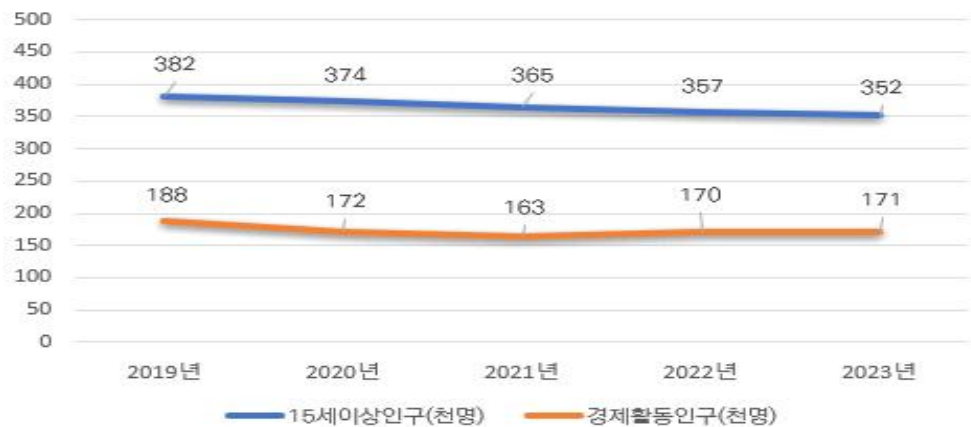
1) 인구·고용 현황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정의한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수치 인용

2. 충남지역 인구·고용 현황

충남지역의 15세 이상 29세 인구는 2019년 38.2만명에서 2023년 35.2만명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도 살펴보면 코로나 시기(2020~2022년)를 제외 하더라도 2019년 18.8만명에서 2023년 17.1만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1] 충남지역 연령별(15~29세) 경제활동인구(2019~2023년)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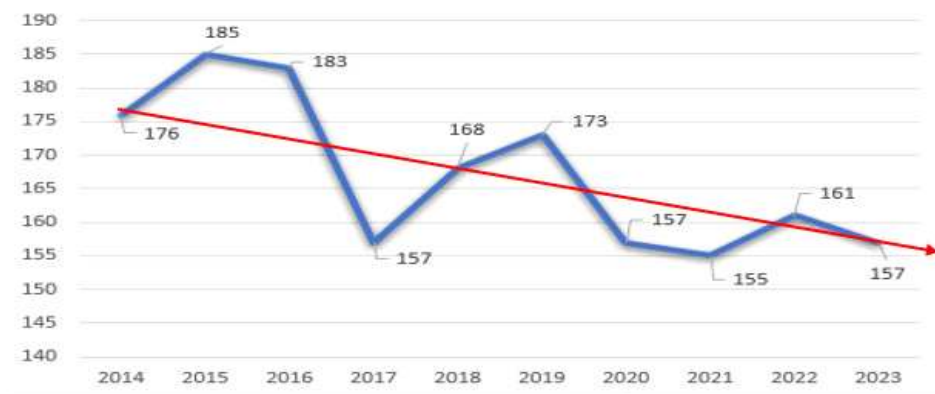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3)

충남지역 연령별(15~29세) 취업자수의 10년동안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17.6만명에서 2023년 15.7만명으로 우하향하며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림 2] 충남지역 연령별(15~29세) 취업자수(2014~2023년)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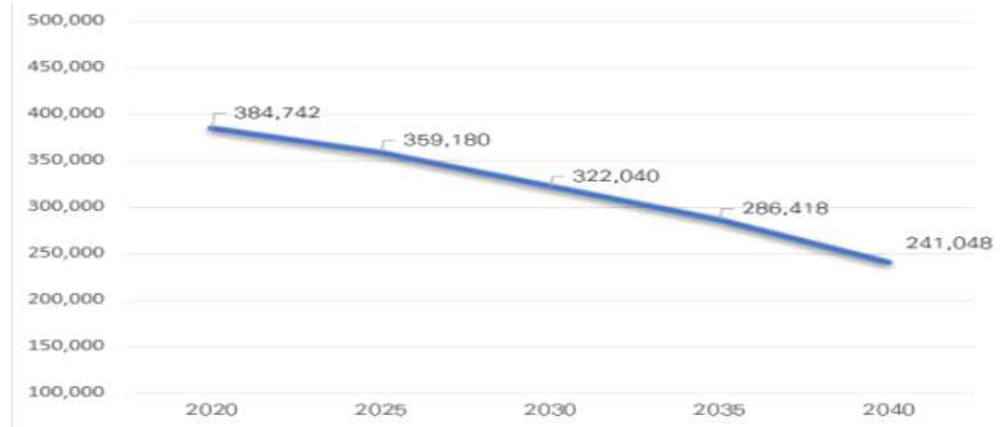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3)

충남지역 연령별(15~29세) 장래 인구추계(중위)를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추계인구 추이를 보면 2020년 384,742명에서 2040년 241,048명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40년 장래인구는 2020년 대비하여 약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3] 충남지역 연령별(15~29세) 장래 인구추계(중위)(2020~2040)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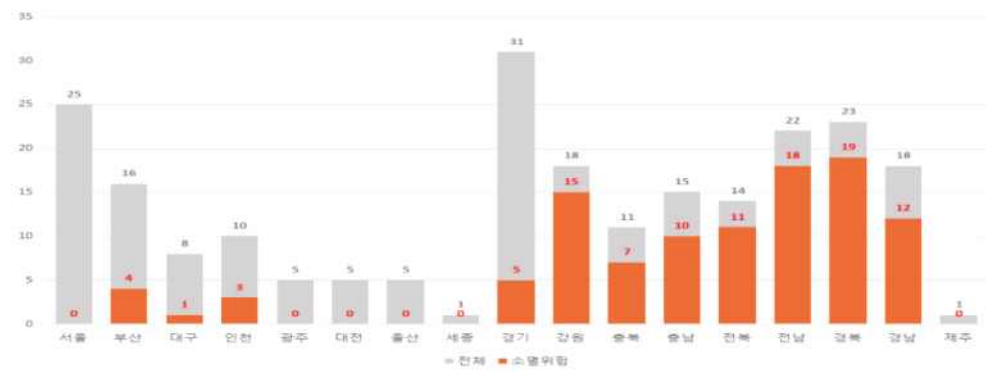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더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기준 시도별 시군구-소멸위험지역 현황에서 충남지역은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단계로 진입했다는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그림 4] 시도별 시군구-소멸위험지역 현황(2020년 4월 기준)

(단위 : 시군구 수)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더 나아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충남지역(전출지역)에서 타지역(전입지역)으로 이동자수를 보면 2021년 117,164명, 2022년 102,382명, 2023년 100,340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5] 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수(2021~2023년)

(단위 : 명)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에서 경기도 이동자수는 2021년 37,709명, 2022년 31,425명, 2023년 31,833명이다. 충남에서 경기도로 인구수 유출 비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2.18%, 30.69%, 31.73%로 나타났다.

[표 1] 전출지/전입지(시도)별 이동자수 및 비중(2021~2023년)

(단위 : 명, %)

주요 전입지별	2021		2022		2023	
	이동자수 (명)	비중(%)	이동자수 (명)	비중(%)	이동자수 (명)	비중(%)
전국 합계	117,164	-	102,382	-	100,340	-
서울특별시	19,358	16.52	17,938	17.52	16,993	16.94
경기도	37,709	32.18	31,425	30.69	31,833	31.73
대전광역시	14,739	12.58	13,101	12.80	12,536	12.49
충청북도	6,721	5.74	5,966	5.83	5,919	5.90
세종특별자치시	6,307	5.38	5,166	5.05	4,308	4.29
...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3), 저자 재정리

흥미로운 점은, 충남지역에 근접한 지역(대전·충북·세종)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3개지역을 다 합쳐도 3년 평균 약 23.4% 정도인데, 경기도 이동자수 3년 평균 약 31.5%보다 더 낮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을 합친 비율을 살펴보면 3년 평균 약 48.5%로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충남지역 주민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3. 취업선호도 조사에서 나타난 청년층 취업선호

충남인자위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내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지역내 직업계고 2학년 학생과 대학교 졸업예정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성향, 지역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향후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는 취업에 관련한 청년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분석해 청년 유인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 있다.

최근의 취업선호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34개 특성화 고등학교 및 4개 마이스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175명과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예정 재학생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조사 방법으로는 온라인 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진로 및 취업 성향, 충남지역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취업 선호도, 직업교육훈련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 주요 내용

조사 내용	세부 내용
응답자 인적사항	성별, 학교, 학과 구분, 전공계열 등
진로 및 취업 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 대략적인 취업 목표, 희망 직종 및 업종 등
취업 성향	취업을 위해 중점적 준비한 부분, 취업 준비시 가장 어려운 부분, 희망하는 연봉 수준 등
충남지역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취업 선호도	충남 소재 기업에 대한 인지도, 취업 시 선호 지역, 충남 소재 취업 선호 및 비선호 이유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학교 외 직업교육 및 훈련 경험, 향후 학교 외 직업교육 및 훈련 경험, 훈련 목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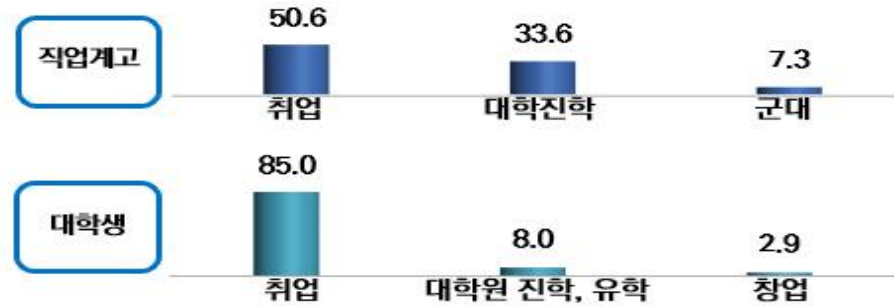
출처: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2023)

취업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직업계고 학생 50.6%, 대학생 85%가 취업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직업계고의 경우에는 취업 외 대학진학 33.6%, 군대 7.3% 응답이 있어 대학생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직업계고 학생과 대학생 모두 취업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 결과(취업 의향)

(단위 : %)

[BASE: 대학생 660명, 직업계고 1,175명]



출처: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2023)

취업준비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직업계고 학생은 자격증 취득(88.4%), 성적관리(65.7%), 인턴·현장실습 등 직무경험(25.9%) 순이며, 대학생은 취업 준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52.8%), 직무 및 직업에 대한 자료 부족(50.8%), 취업 정보 부족(47.6%)으로 응답했다.

[그림 7]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 결과(취업 준비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단위 : %)

[BASE: 대학생 660명, 직업계고 1,175명]

[BASE: 대학생 660명, 직업계고 1,17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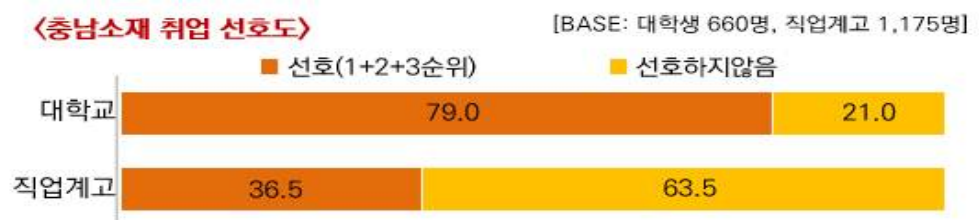
출처: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2023)

충남지역 소재 기업 취업 선호도의 경우에는 직업계고 학생 36.5%, 대학생 79.0%가 충남지역에서 취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충남소재에 취업 비선호의 이유는 직업계고 학생은 충남 외 다른 지역에 일자리가 많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61.6% 대학생은 마음에 드는 회사가 충청남도에서 없어서(65.4%)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림 8]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 결과(충남소재 취업 선호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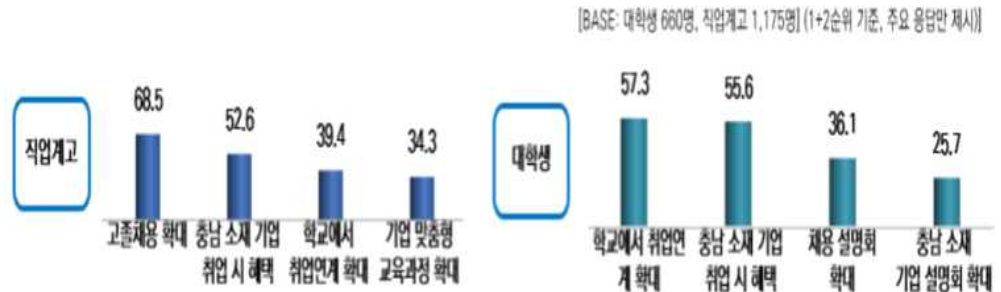


출처: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2023)

취업 준비할 때 기업 또는 충남도에 바라는 점을 보면, 직업계고 학생은 고졸채용 확대(68.5%), 충남 소재 기업 취업시 혜택(52.6%)로 가장 높았고, 대학생은 학교에서 취업 연계 확대(57.3%)와 충남 소재 기업 취업시 혜택(55.6)이 높았다. 두 계층 모두 1+2순위내에 「충남 소재 기업 취업시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9]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 결과(취업 준비할 때 기업 또는 충남도에 바라는 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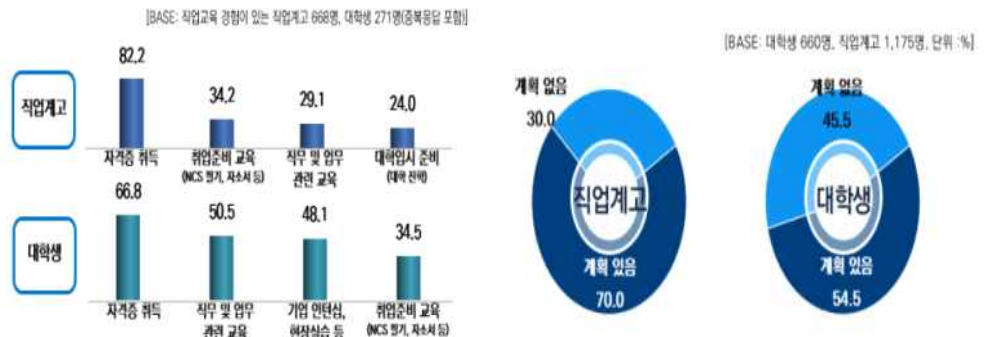


출처: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2023)

끝으로, 직업계고 학생의 경우에는 56.8%, 대학생은 44.7%가 직업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도움이 된 직업교육은 대학생과 직업계고 모두 자격증 취득에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향후 직업교육 계획에서는 직업계고 학생 70.0%, 대학교 학생 54.5%가 향후 직업교육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0]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 결과(직업교육 수요)

(단위 : %)



출처: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직업계고·대학교 취업선호도 조사(2023)

4. 제언

지역에서의 경제활동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인구 유출 등에 대한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해 고용시장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청년층은 고용시장 진입에 있어 다양한 요인 등을 고려하는데, 백화점식의 지원 정책은 지양해야 하며 청년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취업선호도 조사를 보면 직업계고·대학교 학생들의 취업 인식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직업계고·대학교 학생들간의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의 순위는 같지만, 직업계고 학생의 경우 1순위는 「연봉 등 임금수준」(76.1%), 2순위는 「적성·흥미」(54.6%)로 1·2순위간에 차이가 크지만 대학생은 「연봉 등 임금수준」(58.8%), 다음으로는 「적성·흥미」(53.3%)로 거의 차이점이 없다.

취업준비에 겪는 어려움은 직업계고와 대학교 모두 취업 정보 부족, 직무 및 직업에 대한 자료 부족이 3순위 내로 응답하였다.

취업선호도 조사 결과를 비춰볼 때, 청년층 안에서도 연령대별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취업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첫 번째, 취업 정보제공 확대이다. 청년층에게 지역내 경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설명회, 기업 취업 정보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해 취업에 관한 많은 정보를 더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일에 대한 경험 확대이다. 인턴십, 현장실습 등 현장경험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내 앵커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업 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산업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제공 확대이다. 학교교육에서 적성과 직업흥미 탐색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계열)과 지역산업 내 산업·직종이 일치하는 직업적 경로를 제시해줄 수 있는 산업별역량체계(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이하 'SQF'²⁾ 기반의 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업교육 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 민간 직훈교 등)과 협업을 모색해야 한다.

2) 산업별역량체계(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이하 'SQF')란 산업분야별로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준 직무를 도출하여 표준화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구조화한 것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토대로 교육훈련-학위-자격-경력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체계(출처: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공식홈페이지)

02

충남지역 청년층 유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 부연구위원

1. 서론

청년층 고용문제가 시간이 거듭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사태의 영향으로 청년층 취업난은 더욱 악화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고용위기로 이어졌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공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지역별 봉쇄조치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이 축소되거나 마비되었고, 직업을 잃은 노동자들과 미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장기 실업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청년층의 취업이 늦어지게 되면 이에 따른 임금손실 및 경력 상실을 겪을 수 있고, 경력 상실이 길어진 청년층은 저임금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률, 취업자 수 증감 등의 양적 고용지표와 임금(소득), 종사상 지위(고용형태) 등의 질적 고용지표 모두 하락하면서 하향취업과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함께 나타나게 된다.

특히, 노동시장의 침체와 충격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고학력 청년층은 자신의 학력(기술)수준보다 낮은 학력(기술)수준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미스매치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고학력자 공급 증가, 구인·구직난의 공존 현상 등으로 인한 양적 미스매치(job mismatch), 적정 일자리 이하에 취업하거나 전공과 불일치한 직종에 종사하는 등의 질적 미스매치(skill mismatch)로 구분된다.

2. 충남지역 청년인구 및 취업자 현황

충남지역의 15-29세 청년 인구 현황 및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국과 서울 및 경기지역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표 3〉 참조). 전국 기준으로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충남지역도 15-29세 청년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의 청년 인구 감소 현상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보이나, 충남은 청년인구 규모로 볼 때 서울 및 경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유입) 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인 충남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유출)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3] 충청남도 지방소멸위험 추이

(단위 : 천명, 전년대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14→'23)
전국	9,968	9,956	9,889	9,765	9,630	9,469	9,262	9,001	8,762	8,518	
증감	-42	-12	-67	-125	-135	-160	-208	-261	-239	-244	-1,450
서울	2,046	2,015	1,981	1,951	1,925	1,906	1,871	1,811	1,776	1,734	
증감	-27	-30	-34	-30	-26	-19	-35	-60	-34	-42	-312
경기	2,440	2,470	2,492	2,490	2,490	2,483	2,475	2,446	2,390	2,333	
증감	17	30	22	-2	-1	-7	-8	-29	-56	-56	-107
충남	371	372	371	368	362	355	345	336	330	326	
증감	0	1	-1	-3	-5	-8	-10	-8	-6	-5	-46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저자 재가공)

다음으로 <표 4>를 통해 충남지역 15-29세 청년인구 및 청년취업자 비율 추이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충남 지역의 15-29세 청년인구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23년 3.82%로 0.10%p 증가한 반면, 청년취업자 비율은 2014년 4.63%에서 2023년 4.03%로 0.60%p 감소하였다.

서울 및 경기의 경우 청년 취업자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충남지역의 청년 취업자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충남지역 15-29세 청년인구 및 청년취업자 비율 추이(2014-2023년)

(단위 :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14→'23)
청년 인구	서울	20.52	20.24	20.03	19.98	19.99	20.12	20.20	20.11	20.27	20.36	-0.16
	경기	24.48	24.80	25.20	25.50	25.86	26.22	26.72	27.17	27.27	27.39	2.92
	충남	3.73	3.74	3.75	3.76	3.76	3.75	3.72	3.73	3.77	3.82	0.10
청년 취업자	서울	22.07	21.82	21.75	21.81	21.85	22.05	22.51	23.32	22.42	22.85	0.78
	경기	25.43	26.11	25.95	26.57	26.87	26.79	26.65	27.37	28.78	28.83	3.39
	충남	4.63	4.79	4.68	4.02	4.30	4.39	4.17	4.00	4.03	4.03	-0.60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저자 재가공)

3. 충남지역 청년인구 유출입 현황 및 노동시장 이행에 따른 지역간 이동

다음으로 시도간 인구이동을 보면(〈그림 11〉), 서울, 경기 충남, 경북지역 등에서 인구의 유입과 유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남은 지난 10년간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32.8%, 유출이 25.6%로 전국 시도지역 중 가장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충남지역의 경우는 세종지역을 충남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기 때문에 유입 비율(32.8%) 중 대전으로부터 유입된 비율이 12.4%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동한 청년층이 상당수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1] 청년층의 지역별(시도별) 인구 유입 및 유출 현황(2010→2020년)

(단위: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YP2007)

충남지역만을 대상으로 2020년 기준 지난 10년간 청년층 유입 및 유출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남지역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에서는 대전(12.4%), 서울(4.0%), 경기(2.8%) 등에서 높은 유입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출측면에서는 경기지역으로의 유출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대전 6.3%, 서울 5.0%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입 특징을 정리해보면, 대전에서 청년인구가 많이 유입된 반면, 경기 및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충남지역 청년층의 인구 유입 및 유출 현황(2010→2020년)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 입 (N=177)	4.0	2.8	1.1	2.3	1.7	12.4	0.0	2.8	0.6	1.1	67.2	0.0	0.6	2.8	0.6	0.0
유 출 (N=160)	5.0	0.0	0.0	1.9	0.0	6.3	0.0	8.8	0.0	1.9	74.4	0.0	0.6	0.0	1.3	0.0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YP2007)

다음으로는 청년층의 출신지역-첫 일자리-현재 일자리 지역으로의 변동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도별 기준으로 보면(〈그림 12〉 참조), 서울(80.7%), 경기(70.1%), 충북(72.6%), 전북(74.4%) 등의 지역에서는 지역간 이동 없이 출신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동일지역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청년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 등에서는 출신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완전 이동한 비율이 3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지역의 경우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비해 출신지역을 완전 이탈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제주 지역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 지역간 이동 없이 출신지역을 유지하는 비율(82.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특징은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타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간 이동없이 출신지역을 떠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청년층 비율(62.4%)도 높음과 동시에 출신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완전 이동한 비율(36.3%)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 시도별 출신지역-첫 일자리-현재 일자리 지역 변동 현황

(단위 : %)



주 : 유형 1은 출신지역 유지(지역간 이동 없음), 유형 2는 출신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 후, 다시 출신지역으로 복귀, 유형 3은 출신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완전 이동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YP2021)

다음으로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대졸 청년층의 출신지역-대학-현재 일자리 변동 현황을 보면(〈그림 13〉 참조), 부산(55.3%), 광주(52.6%), 대전(51.8%), 충북(52.2%), 전북(55.6%) 등의 지역에서는 지역간 이동 없이 출신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동일지역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청년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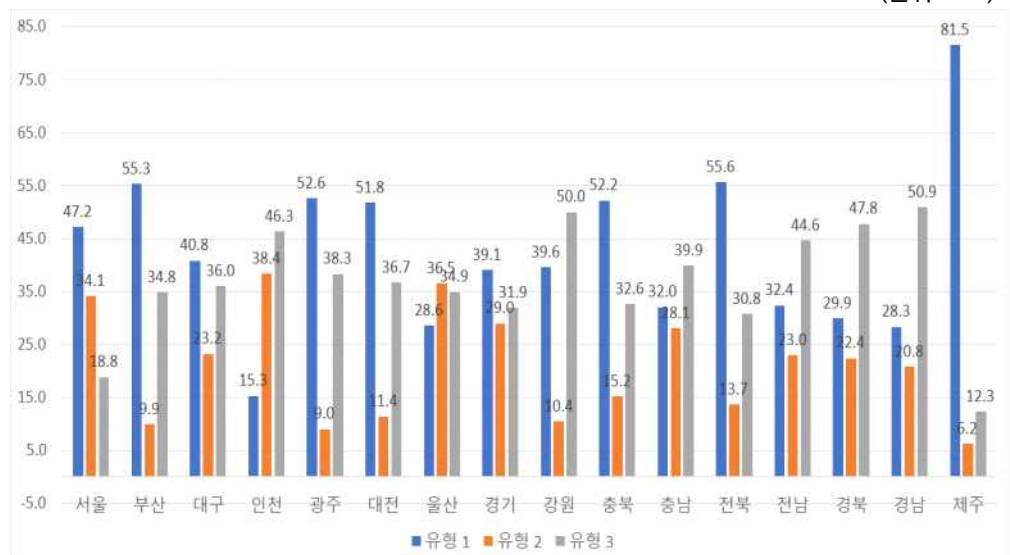
반면, 인천,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는 출신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완전 이동한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대구, 대전, 충남, 울산 지역의 경우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비해 출신지역을 완전 이탈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도 제주 지역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섬)으로 인해 지역간 이동 없이 출신지역을 유지하는 비율(81.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지역의 특징은 유형 1(출신지역 유지), 유형 2(출신지역에서 타 지역 대학 이동 후, 다시 출신지역의 현재 일자리로 복귀), 유형 3(출신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완전 이동)의 비율이 각각 32.0%, 28.1%, 39.9%로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향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출신지역을 유지하는 청년층 비율을 높여야 함과 동시에 충남(출신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완전 이동하는 청년층 비율을 낮춰야 하는 정책방향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13] 시도별 대졸 청년층의 출신지역-대학-현재 일자리 변동 현황

(단위 : %)



주 : 유형 1은 출신지역 유지(지역간 이동 없음), 유형 2는 출신지역에서 타 지역 대학 이동 후, 다시 출신지역의 현재 일자리로 복귀, 유형 3은 출신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완전 이동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YP2021)

5. 글을 마치며

충남지역 청년층의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인구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 및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1차 노동시장 일자리(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등)의 양적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출신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출신지역에서 이탈한 청년들의 고향 복귀를 유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야 한다.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중소기업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대기업의 기업모형이 고용의 외부화와 해외 생산공장의 확대 등을 강조하면서 고용창출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지역의 청년 일자리 부족 및 불균형은 노동문제 외에 주택,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성장이 이뤄질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그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때 가능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높은 직장이 마련되어야 결혼과 출산 그리고 주택 마련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지역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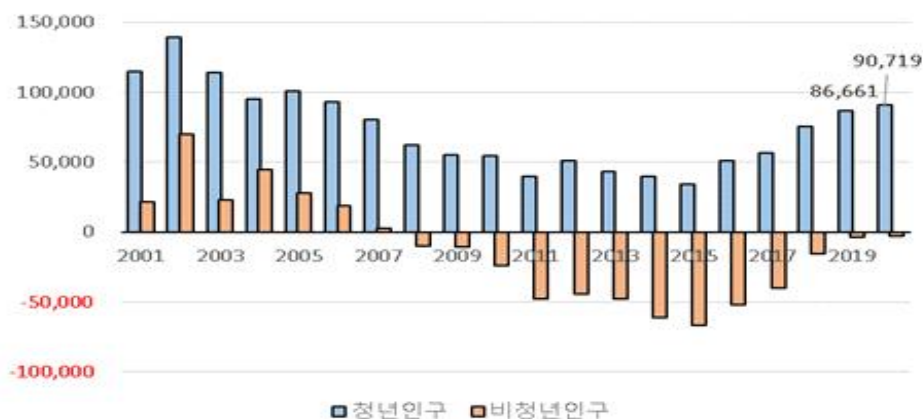
충남도내 청년층 취업과 지역산업 연계한 인력양성 방향 : 충남 RISE와 청년층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지훈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는 글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은 청년층에서 더욱 심화되는데 현재 일자리를 비롯해 교육, 경제, 문화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청년인구 이동도 주요한 원인이다.

[그림 14] 수도권 지역으로 연령대별 순이동 추이



청년층의 지역정주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지역의 경제·사회 활성화와 함께 지방의 생존과 연계되어 있는 시급한 사안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충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 소재 대학과의 연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은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실태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한계대학중 75%가 지방대학이다. 지방대학은 청년층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사회경제적 자원을 유입한 핵심주체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지방소멸의 속도를 늦추고 지방중심의 자생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핵심주체로 지방대학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 사업 권한의 지방이양을 강조한 바 있다. 권한이양을 통해 지역과 대학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대학 협력활동으로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위기극복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of Education)로 구체화되어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2. 충남의 경제 사회적 여건과 대학의 현황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한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생산시설이 집적하면서 1990년대 이후 다른 지역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구현하였다. 특히 석유화학 및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이 충남 전체산업의 53%를 차지하면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김진·김성주, 2023). 이에 시도별 지역총생산(GRDP)은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3위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충남의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인접한 서북부 권역(천안·아산·서산·당진)과 이외 지역의 산업·경제적 격차가 매우 심한 것이 특징이다.

서북부권역 지역은 모두 10조원 이상(아산 30조원, 천안 26조원 등) GRDP규모를 보이지만 이외 지역은 5조원 이상의 지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 제조·생산 중심으로 형성되어 중소기업의 소규모와 영세성의 한계극복이 관건이며 이를 위한 인재유입과 인력 미스매치 해소가 필요하다.

충남은 다음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5대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미래성장선도와 일자리 창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충남 주력산업(주축산업 및 미래신산업) 선정내용

구분	주축산업 선정	미래 신산업 선정
기준	(수직구조)생산품목 중심의 기업생태계 조성 (수평구조)기술·생산단계 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전략성)민선8기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 (신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생태계)앵커기업, 기업군, 인프라 보유
결과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산업

하지만 충남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충남 동남부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의 보건복지 인력이나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인프라는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른 충남 청년층의 정주의사는 다른세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충남의 산업특성에 따른 청년층의 인력공급과 일자리 수요간에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의 5대 주력산업 중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부분에서 학사급의 인력이 부족하며 석박사중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분야의 인력공급이 부족한 수준이다(충남지역산업진흥계획,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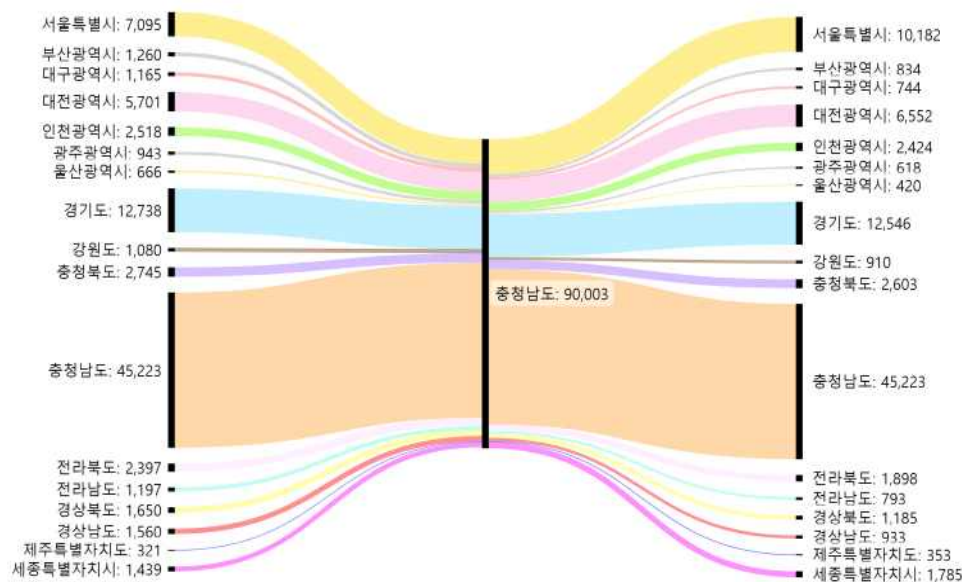
도내 청년들의 취업상황만을 보면 충남은 전국과 유사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 약 20%만 지역 내, 60%는 서울·경기지역으로 취업하고 있다.

충남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인력은 전체적으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시·군 단위로는 서북부 및 내포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고용인력의 감소폭이 증가하여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또한 충남 대학졸업자 중 60% 이상이 수도권으로 취업하며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 충남사회조사(2022)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은 일자리 기회의 불충분으로 인해 지역정주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5] 2022년 기준 충남지역 청년 전출입 현황

(단위 : 명)



자료: 김진 · 김성주(2023)

도내 대학중심으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70%로 전국평균(69%) 수준이지만 주로 기술중심 대학들보다 인문사회기반 대학들의 취업률이 낮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마련도 필요하다.

창업현황도 살펴보면 창업강좌수나 이수현황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³⁾에 있으며 도내에서도 공주대, 백석대, 순천향대, 한기대 등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창업이 주도되고 있어서 도내 대학간 불균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특징적이다.

충청남도의 지역과 대학에 산재한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주체들간 긴밀한 연계활동을 기반으로 공동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RISE 추진체계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3) 충남 지역은 '20년~'21년 대비 '22년 창업 강좌 수('20)2,157개 → ('21)2,031개 → ('22)1,864개) 및 강좌 이수 학생수 ('20)55,729명 → ('21)49,200명 → ('22)44,860명)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3. RISE 기반의 지역산업 연계한 취창업 방향

교육부에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RISE 체계는 지역 주도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지원 체계를 의미한다.

RISE 체계는 과거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대학재정지원사업 기능을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이관하여 자생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결국 RISE 체계는 충청남도의 지역문제 해결과 산업여건과 연계하여 대학의 인력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방대학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RISE 체계의 방향에 따라 충청남도는 지역산업여건과 및 지역정주 환경의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 취창업과 연계한 정책 방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 지역수요 맞춤형의 인력양성 전환과 기반마련

충남 도내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매칭한 맞춤형 대학 인재양성의 방향 전환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한 체계구축과 기반 마련을 통해 청년 취창업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우선 반도체, 에너지, 모빌리티 등 충남의 주력산업들과 대학 교육과정을 연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인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극복이 필요하다.

결국 도내 대학의 학사구조와 교과과정이 지산학연 중심으로 개편하고 첨단학과를 설치하는 등 충남의 반도체, 수소산업, AI 등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분야에 활용가능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현장실습 및 지역기업 맞춤형 트랙 등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전문)대학 중심으로는 현장실무인재와 대학원 중심의 고급전문인재의 트랙으로 구분하여 설계·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기업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남형 계약학과를 고도화하여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학과는 도내 대학에서 산업체 맞춤형 계약학과를 설계하며 도내 산업체 교육내용을 의뢰하여 대학과 상호간 설치운동을 협의 및 협약체결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세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로드맵이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졸업 이후 산업체 채용이나 과정중 조기취업형 등의 다양한 방법들의 설계가 가능하다.

2) 지역산업 중심의 직업평생교육체제 구축 운영

청년들의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은 취창업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 재직과정에서도 혁신역량 고도화 과정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직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체제의 구축과 운영은 도내에서 청년들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충남에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입직자를 대상으로 on-boarding 교육 지원을 통해 이직으로 인한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재직자를 위한 직무역량교육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는 지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업의 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도내 대학들의 진로지원센터나 취업일자리 센터들과 연계하여 학교의 전문역량을 활용하고 직원들에게 학습휴가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참여 인센티브를 충남도에서 제공하는 등의 유인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콘소시엄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내대학을 설립하여 역량강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사내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해 (전문)학사와 대학원과정을 개설하며 도내 대학(들)이 사내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을 수행하도록 하여 긴밀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RISE 지원체계는 지역산업체 인력공급과 함께 다수의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충남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대학의 청년들이 새로운 취창업의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는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는 대학과 지역간 현안문제 해결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네트워크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수요기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취·창업하여 정주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남이 취약한 지역사회의 공공보건 의료인력의 양성과 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내 빈집 등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로컬 이노베이션 등의 인력양성과 취창업기회 제공, 돌봄공백해소를 위해 공동체 기반 생활돌봄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기관운영 등의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수요 맞춤형 정책추진도 도내 모든 지역 뿐만 아니라, 대학과 도내 시·군간 협약을 통한 맞춤형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방식으로 RISE 체계를 통해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4. 나가는 글

우리사회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지역문제를 발생 시키며 동시에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도 함께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는 RISE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간 협력을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충남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경북 다음으로 많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 등의 경제활동도 활발한 지역이다. 하지만 충남소재의 대학 졸업자와 청년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인재들이 지역 소재의 산업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창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부의 RISE 지원체계는 이와 같은 방향을 위해 대학지원을 위한 예산과 권한을 지역(광역자치단체)에 주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RISE 예산을 전체 2조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어서 충청남도 또한 최대한 RISE 예산을 확보하여 위에서 제시한 3가지 방향을 기초로 지역산업 및 문제 해결 활동과 연계한 청년층 취·창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집필진

내부 집필진	석진홍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팀
	정효채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팀
	이창행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팀
외부 집필진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충남 인력양성 매거진 2024-03

충남지역 청년 일자리 현황과 인력양성 방향

발행일 2024년 10월 30일

발행인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팀(강희택, 석진홍, 정효채, 전선두, 이창행, 유새미)

발행처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설치기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지역 청년 일자리 현황과 인력양성 방향

본 자료의 내용은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충남경제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경제진흥원